



모두를 사랑하자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사야 26장 4절)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이사야는 예언자라고 불려요.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사랑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예요.



예언자 이사야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모른 체 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끈게 서 있도록 받쳐 주시는 큰 바위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게 되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브라질에 사는 루이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할머니는 한쪽 손을 다치셔서 집안일을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 집에 가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와 드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농장에 물을 주고, 과일을 따느라 바쁘셔서 할머니를 도울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며 아주 기뻐하셨어요.